

목회칼럼

「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 」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삼하 22:29)

우리 삶의 내부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름다움과 또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죄의 속성이 함께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한 밝음, 완전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님은 나의 어두움을 밝게하십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빛과 등불이 되시며 자신의 삶을 밝히시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자신의 인생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어두움을 이기고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 8:12)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을 따라 감으로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빛이 뿌리워진 인생 그리고 기쁨이 뿌리워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시 97:11)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4월 합심기도

하나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합 2:14)

둘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시 91)

셋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계 17:14)

넷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함의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불붙는 확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3주간 연장(5월 2일까지)에 따라 주일예배는 전체좌석의 20%까지 1부(9시)와 2부(11시)로 나누어서 드리며 각종 대면 소모임 및 식사는 금지합니다.

❷ 지난주 제57회 강북노회 정기회에서 담임목사님께서 부노회장과 총회 총대로 선출되었습니다.

❸ 신민철 형제 ♡ 박단비 자매의 결혼식이 24일(토) 오후 2시 30분에 전주 더케이한국교회직원 공제회관(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있습니다.

❹ 권오순 권사님이 무릎골절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교회청소 - 5셀

▶ 다음 주 - 6셀

◆ 4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4/ 4	부활주일
4/13	강북노회 정기회(포천제일교회)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정우준 노성진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행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이희숙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7: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2021년 4월 18일 16호

2021년 성은교회 표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 (합 2:14)